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파릇파릇한 새싹이 입술 쭉 내밀고 자라나듯 오늘도 우리 학생들은 자랍니다.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Q1. 요즘 학생들은 온통 '신상'에 빠져 있습니다. 오래된 것을 터부시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이야기는 듣고 또 들어도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나 노래는 리바이벌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도 요즘은 옛이야기라면 보수주의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에 집착하느라 현실적인 능력이나 미래의 비전이 없는 이들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옛 이야기나 전통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훌륭한 과거 없이 밝은 미래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이라는 말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진보주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두려워하거나 혐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수주의보다는 개혁주의를 더 좋아합니다.

개혁이란 과거만 있는 수구나 미래만 말하는 급진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혁이란 끊임없는 과제입니다. 참된 교회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개혁한다는 말은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일대학의 역사학자인 펠리칸은 바른 전통을 전통주의와 구별한 적이 있습니다. 즉 진정한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이지만, 전통주의는 "산 자의 죽은 신앙" 이라 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이지만 살아 있는 이야기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야기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살아야 할 사람들의 비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죽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비전의 능력』이란 책에서 비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에게 주시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일에 대한 분명한 정신적 이미지이다."

그는 또한 재즈 음악가의 이야기로도 비전을 정의하였습니다. 리듬을 정의해보라는 질문에 음악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리듬을 알면 정의가 필요 없고, 모르면 정의는 전혀 도움도 안 된다." 비전의 사람에겐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성경의 비전을 정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비전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전해주면 됩니다.

우리들이 옛 성도들을 따라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듯이 아이들도 이들의 삶을 따라 살면 같은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비전은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통해 주어집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끝자락에 와야 합니다. 우리 이야기도 요한계시록 22장 후반부 어딘가에서 위대한 성경 드라마의 일부가 되어야 하니까요.

"성경의 비전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이어집니다."

Q2.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살아 있는 비전과 소망으로 가르칩시다.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 속 옛 이야기뿐 아니라 요즘 예도 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에 본 이야기가 아니라 옛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 이야기 말입니다.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것은 소망이며 믿음이며 비전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그것은 또한 실제요 현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전과 소망은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바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모든 교육은 근본적으로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주일학교를 교육해야 합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에게 신앙의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언제나 어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가 끊어지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출현합니다.교사가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실을 조명하기 위함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는 까닭은 향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순간이면 반드시 옛 성도들의 이야기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 냅니다."

신앙 교육과 하나님 나라 비전

한 유명한 축구팀 코치는 경기에서 진 다음 날 아침이면 반드시 일찍 선수들에게 기초 훈련부터 시키곤 했답니다. 그는 공을 쳐들며 "제군들, 이것이 공이다"라는 말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신앙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성경의 진리에 든든히 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부모와 교회 교사는 아이들이 신앙의 토대를 다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과 주일학교 교사, 목사님들의 복을 누렸습니다. 제 어머님도 성경 이야기보다는 공부하라는 꾸지람을 더 자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덕에 성경을 읽었고, 좋은 목회자와 교사들로부터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내와 더불어 딸들이 아직 글을 모를 때부터 그림 성경을 통해 이 이야기를 열심히 보이고 들려주려 했습니다.

물론 돌이켜 보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목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왔습니다. 적어도 지난 40년은 세상의 여러 이념들로 시야가 어지럽던 시대임에도 성경의 진리로 눈이 밝아졌다고나 할까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처럼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교육은 아이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샬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 (이상 IVP) 등이 있다.